

冠岳舍 舍監長의 獨白

愼 翼 晟

(서울大 言語學科 教授)

I

관악사라는 이름을 가진 서울대학교 寄宿舍의 舍監長을 맡은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약 2,0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니 우리 나라에서는 가장 큰 학생 기숙사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24시간 생활하는 곳이니 그만큼 일어나는 일도 다양할 뿐 아니라 많은 학생들과의 생활이기 때문에 가지가지의 일들을 경험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세월 가는 것이 더디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마는 어쨌든 벌써 3년이 지나갔으니 세월이 빠르다고 느껴진다는 것에는 새삼스러운 것이 없다. 내가 사감장을 맡은 것은 1980년말이었다. 그때는 이미 나는 너무 때가 늦은 감은 있었지만 일찌기 가져 보지 못한 기쁜 일이 생겼기 때문에 하루 하루가 즐겁기 그지 없을 때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外國留學이었다. 외국유학이란 다른 동료들은 대부분이 젊어서 이미 경험한 것이지만, 이유는 고사하고 그 機會가 인생을 거의 다 살고 난 후 나를 찾아오게 된 것이다. 그것은 그 당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하나의 비밀이었다. 다가오는 일년은 내 나름대로의 보람 있는 생활을 해 보겠다는 희망에 들떠 있었던 1980년말 서울대학교에도 終務式이 있었다.

지난 일년 동안 학사보고도 듣고 오랫동안 만나 보지 못한 동료들과 이야기도 하고 싶어서 종무식에 참석했다. 식과 연회가 거의 끝날 무렵 총장 비서를 통해서 總長께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전갈이 왔다. 그 당시 그분과는 안면이라고는 전연 없었다. 지난 일년 동안 그야말로 무사안일한 생활을 해 왔으니 그 전갈이 이상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이상야릇한 심정에 젖은 채 總長室에 갔더니 용건은 난데없이 기숙사 사감장을 맡아 달라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착잡한 심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만약 수락하면 난생 처음이고 앞으로도 경험할 수 없게 될 留學의 꿈이 순식간에 깨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망설이지 않고 수락했다. 사감장이란 고생스러운 보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수락한 근본적인 이유는 평소부터 학생들과의 생활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도 사감을 하고 싶다는 것을 말로나 行動으로나 표시해 본 일은 한번도 없었다. 사감이라는 것이 어느 의미에서 나에게 맞는 보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때도 가끔 있었다. 과거 30년 동안 대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놀고 운동하고, 여행하는 生活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러한 생활이 더욱 철저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사감생활이 유학생생활을 보상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했다. 그날부터 사감장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관들 중에서 學生寮 宿舎만큼 복잡한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도 드물 것이다. 그 인적 구성은 사감을 맡고 있는 교수, 행정직원, 조교, 수위, 청소부, 주방에서 일하는 남녀 조리원, 영양사, 식품 기타를 공급하는 업자 등으로 되어 있다. 기숙사가 대학의 다른 기관과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기숙사가 교육수준이 낮고 소득이 적은 從業員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숙사가 잘 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 및 생활수준이 높은 층과 낮은 층이 같은 理念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숙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두 개의 다른 층을 잘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사감장의 중요한 役割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지난 3년 동안의 사감 생활을 돌이켜 보건대 우선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즐거웠던 추억보다 괴로웠던 추억들이다. 즐거웠던 추억이라는 것은 어려웠던 고비를 운이 좋아서 大過 없이 넘기고 난 후의 안도감에서 온 추억뿐이다. 그동안 체험했던 것들을 조금 들어 보기로 한다.

II

사감장이 된 후 첫번째 당한 사건이다. 茶室生이 과음해서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 있었다. 어느 4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의 한 후배와 술에 만취되어 유리문을 손으로 잘못 쳐서 그 부상으로 인한 출혈을 너무 많이 한 탓으로 잠시 동안 人事不省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그 일이 밤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기숙사에서는 소동이 일어났고, 병원은 학생의 출혈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당황했다고 한다. 그 일이 있었던 이튿날 사감회의를 열어 그 학생의 處罰問題를 의논했다. 나는 그 학생이 귀사 시간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밤늦게 조그마한 소동을 일으킴으로써 많은 학생들의 안면까지 방해했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 학생이 술을 마신 動機나 유리를 부숴버린 행위 자체에 악의가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귀사 시간이 지나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쳤기 때문에 내 주장을 굽힐 수 없다고 끝까지

고집했다. 그랬더니 내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 그 학생이 처벌된다는 말이 나가자 棟대표학생들이 찾아와서 그 학생이 처벌을 받지 않게 해 달라고 사정했다. 내가 단호히 거절했더니 부끄러운 이야기 같으나 애걸이 반힘박으로 바뀌었다. 만약 그 학생이 처벌을 받으면 그것을 座視하지 않을 학생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처벌이라고 해도 물론 퇴학처분도 아니고 정학처분도 아닌 다만 退舍處分이라는 경미한 것이었다. 동료를 위해서 사정해 보는 것까지는 좋다. 하나 좌시하지 않겠다는 스승에 대한 태도는 지금 생각해도 쓴 맛이 난다. 물론 그것은 사생 전부의 태도가 아니고 소수의 학생들의 태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학생이 하나라도 있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나. 우리는 잘못을 히심탄회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잘못에 대한 변명이 너무 많다는 것이 우리 나라 일부 학생들의 잘못된 性癖인 것 같다.

나는 그 당시 차라리 거꾸로 생각하고 싶었다. 내가 그 학생을 처벌 않겠다고 假定해 보았다. 그러한 경우에 왜 그렇게도 많은 학생들에게 폐를 끼치고 괴롭힌 학생을 처벌하지 않느냐고 나에게 항의하는 학생들이 있기를 바랬다.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만약 술에 만취된 학생들로 인해서 직접 피해를 입었다면 아마 그들의 態度가 달라졌을 것이다. 직접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신경이 민감하고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인, 共同體에 대한 피해에는 신경이 무딘 학생들이 많다.

남에게 조금이라도 폐가 되는 일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좋은 습관이 우리 나라 학생들의 몸에 뱄 때가 바로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때라고 생각된다. 민주주의 역사가 어떻고 민주주의 이론이 어떻고를 몰라도 좋다. 참된 민주주의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사소한 일일지라도 남에게 폐를 끼친다는 것에 신경이 민감해야 된다. 숙적할 때 흔히 경험하는 일이다. 밤 늦게 남들이 잠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요란스럽게 닫는다든가 문을 열어 달라고 고함을 지른다든가 시끄러운 걸음소리를 낸다든가 해서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이런 思考方式이 고쳐지지 않고는 공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세삼스럽게 느낄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남의 잘못에는 민감하고 자기의 잘못에는 관대한 성격의 주된 원인은 家庭教育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가정교육 속에서 20세가 가까워질 때까지 잘못 길러진 학생들의 나쁜 버릇을 일조일석에 고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감들은 그러한 학생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사감들은 그러한 학생들의 나쁜 버릇을 고쳐 줌으로써 졸업 후 사회를 위한 훌륭한 일꾼이 되게 하는 데 노력의 보람을 찾는 것이다.

挿話와 같은 사례를 하나 더 들어 보기로 한다. 초겨울 늦은 밤에 잠자리에 들어 가려고 했던 때에 기숙사에서 큰 일이 났다는 전화가 왔다. 허둥지둥 기숙사로 달려 갔다. 구급차 주위에 학생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큰 일이 난 것은 분명하다. 그 학생의 목숨만이라도 건졌으면 하고 빌 뿐이었다. 그 학생은 4층에서 떨어졌는데 신기하게도 말도 도렷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을 더욱 걱정스럽게 만든 것은 그 학생이 실족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자살하려고 4층에서 뛰어내렸다는 것이다. 내일 새벽이면 그 학생들의 가족, 신문기자들이 모여들 것을 생각하니 아찔해졌다. 그 학생은 곧 병원에 실려갔다. 하늘이 도왔는지 그렇게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도 가벼운 찰과상으로 끝났다는 것이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일이 무사히 끝날 것으로 알았는데 생각한 것은 이튿날 석간신문에 한 학생이 기숙사 4층에서 자살 하려고 떨어졌는데 현재 重態이다라는 기사가 난 것이다. 사실과는 다른 기사다. 나는 연유를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연유는 다음과 같다. 그 이튿날 아침 일찌기 某新聞社 기자 두 명이 기숙사 행정실에 왔다. 그들은 어젯밤 사건의 경과에 대해서 나에게 물었다. 나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그 학생은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다고 말했다. 만약 의심스러우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전화로 직접 병원에 문의해 보든지 아니면 병원에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라고 까지 간청했으나 그 두 기자는 막무가내였다.

전화를 써도 좋으냐는 한마디 인사 말도 없이 게다가 큰 소리로 전리품이라든가 얻은 듯이 본사의 편지실에 “한 학생이 자살하려고 4층에서 떨어졌는데 지금 중태이다”라고 보고했다. 나는 신문사에 서면으로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항의했으나 그 신문사로부터는 謝過의 전화 한 통 없었다. 이 사례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글의 본 줄거리와 관계가 없는 산화라고 생각해 주면 고맙겠다.

공동생활을 위한 共同意識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례를 또 하나 들어 보기로 한다. 이 사례는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기숙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學生食堂에 공통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식사 문제이다. 그것은 기숙사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 없다. 우리 기숙사는 한 달 식비를 일시불로 받고 학생들에게 삼시 세끼를 제공하고 있다. 식비와 비교할 때 식사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값이 비싼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일부 사이에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식사 문제이다. 식사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말쟁 많은 문제는 학생들이 자기 개인 사정으로 인해 먹지 않은 식사에 대한 還拂의 문제이다. 내가 사감장이 되기 전에는 신청만 하면 환불해 주었다고 한다. 내가 사감이 된 후에는 公的인 일 때문에 식사를 안 한 것이 아니면 환불하지 않기로 결정해 버린 것이다. 불평을 하는 것은 일부 학생들에 국한된 것이지만 불평이 빈번히 일어났었다. 불평을 일으키는 학생들은 주로 본인의 신체 사정 또는 기타의 사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식사를 못한 학생들이었다. 심지어 이런 학생도 있었다. 자기는 위궤양이 있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못하니 아침식사에 해당하는 식비를 공제해 달라는 것이다. 어찌구무 없는 요구였다. 나는 그 학생에게 퇴사만 하면 문제가 깨끗이 해결된다고 대답했다. 우리 사회에서는 不信感이 너무 많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여러 번 본 일이 있다. 나는 실제의 본모기를 학생 기숙사에서 본 것이다. 불평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먹지 않은 식사에 대한 환불을 못 받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먹지 않은 식사 때문에 남은

비용에 대한 지나친 의식이다. 학생들이 알리고 조금만 노력하면 남은 비용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고도 남을텐데도 불평만 일삼으니 병어리 냉가슴 앓는 격이다. 환불할 수 없는 주요한 이유는 환불이 공동생활을 위한 公共精神에 위배된다는 데 있다. 개인의 사정으로 몇 끼 식사 못한 것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몇 날 강의료를 못 받았으니 그만큼 등록금에서 공제하라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먹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남은 비용은 학생 전체에 돌아가게 되어 있었다. 학생들이 낸 돈을 가로챘 사감은 한 사람도 없다고 호소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학생들이 먹지 않은 것에 대한 남은 비용을 學生 전체를 위해서 어떻게 쓰면 좋은지를 건의한 학생은 한 사람도 본 일이 없었다. 만약 학생들이 늦어도 이틀 전에 안 먹게 될 식사를 미리 알려만 주면 상당히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그 남은 비용은 결국 학생들에게 되돌아가는데도 그것을 미리 알려 주는 학생은 百分之一 정도밖에 안 되었다. 연필 혹은 펜으로 줄 하나 그으면 되는데도 안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공공을 위해서는 쉽고 간단한 것도 안 하면서 터무니 없는 權利主張만을 번지르르하게 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감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적당히 열버무리며 해 나가려고 한다면 몰라도 자기의 任務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그 일은 여간 고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모든 사생들이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나 하면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모든 착한 사람은 그의 착한 行爲를 드러내 보이

리고 하지 않는다. 착한 사람은 눈에 잘 안 뜨이는 경우가 더욱 많다. 학생기숙사가 이만큼 지내 왔고, 되어 가고 있는 것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량하고 분별이 있기 때문이라고 자위하면서 보람을 느낀다.

III

마지막으로 올바른 기숙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명심해야 할 것을 나름대로 생각해 본다. 식비가 싸든가 시설이 좋든가 등의 실리적인 이유에서보다는 공동생활을 통한 수양을 해 보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당부하고 싶다. 學父母들도 여러모로 보아 기숙사 생활이 하숙생활보다 편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기숙사에 보내야 되겠다는 알팍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기숙사에 맡기는데 있어서의 마음가짐을 일신해야 된다. 즉 기숙사는 공동생활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훈련을 쌓아 나가는 道場이란 인식을 새롭게 가지는 것이다. 우리 나라 학생들의 자질이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볼 때 우수하다는 것은 인정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團體가 되어 일을 하게 되면 부족한 점이 많다. 이 점은 우리 나라의 국민들에게도 대체로 공통되는 점이다. 우리 나라 학생들이 공동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때가 우리 나라 학생들도 선진국의 학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때라고 믿어 마지 않는다. *